

아파트 상가 옥상 변압기 장마철 위험천만

노후 아파트들 수십년째 방치
3.5t 수만볼트 전기시설물
고주파·진동으로 건물 균열
복구청·한전·관리사무소
이전·철거 등 안전대책 뒷집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C아파트 상가 건물 3층 옥상에 설치된 고압변압기.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아래층 상가들이 변압기 하중을 견디지 못해 곳곳에 금이 가는 등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 상가 옥상에 2만2900V의 고압이 흐르는 3.5t 짜리 전기시설물(변압기)이 20여 년째 방치되고 있어 상가 입주주민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전기시설 전문가는 "대형 고압 변압기(3.5t)에서 발생하는 고주파와 진동으로 노후한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도심 곳곳에 또 다른 유사사례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지상 또는 지하로 옮기지 않으면, 누전 사고는 물론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상가에서 전기시설 노후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상가 주민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복구청과 한전은 '아파트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참다 못한 상가 입주주민들은 최근 복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전으로 책임을 떠넘겼고, 한전은 "해당 전기시설물은 아파트 소유로, 관리사무실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상가 입주주민들은 "상가건물이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 노후됐고, 옥상과 벽면 등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비만 오면 상가 곳곳에 비가 줄줄 새고 전기 누전도 일어난다"며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누전이나 건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24일 광주 복구청과 한전, C아파트 앞 상가 입주주민 등에 따르면 북구 양산동의 C 상가 옥상에는 인근 아파트로 전기를 공급

하는 무게 3.5t짜리 전기시설물(고압 변압기)이 설치돼 있다.

변압기는 지난 1998년 상가 바로 앞에 있는 C아파트 3개동(총 492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C상가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변압기가 있는 건물은 총 3층으로, 12개 상가가 입주돼 있으며 특히 2층과 3층에는 교회 2곳이 들어서 있는 등 주말에는 수백 명의 인원이 동시에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C상가는 2010년 들어 옥상과 벽 등 건물 곳곳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공동 화장실과 건물 내부에 물이 새고 전기 누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상가 입주주민들의 주장이다. 2013년 2월에는 상가 1층에 전기누전 등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상가입주민이 숨지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상가입주민들은 이달 초 수차례 변압기 건물을 옮겨달라고 복구청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최초 민원을 접수받은 복구청은 변압기가 한전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한전에 민원을 이관했으며, 한전 또한 변압기가 아파트 소유물이라면서 C아파트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C아파트 관리사무장은 "상가 옥상에 있는 전기시설은 아파트 건립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제와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상가 건물 관리는 상가 주인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상가가 노후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C상가 위 전기시설물 살펴본 전기전문가는 "옥상에 있는 변압기 등은 상가와는 상관이 없는 시설물로, 바로 앞 C아파트의 전기관을 담당 하고 있다"며 "3.5t이나 되는 큰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건물 노후와 결합 경우 건물 붕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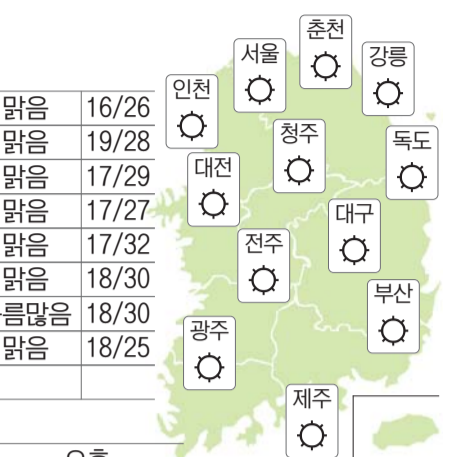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달뜨기 00:29
해질 19:51 달집 12:17

강한 자외선

대부분 지역 맑고 낮 기온 덩겁다.

광주	맑음	19/31	보성	맑음	16/26
목포	맑음	19/28	순천	맑음	19/28
여수	맑음	20/26	영광	맑음	17/29
나주	맑음	18/31	진도	맑음	17/27
완도	맑음	18/26	전주	맑음	17/32
구례	맑음	18/30	군산	맑음	18/30
강진	맑음	18/27	남원	구름맑음	18/30
해남	맑음	17/28	흑산도	맑음	18/25
장성	맑음	17/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북동~동	0.5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해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면바다(서)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 생활지수

☔	주의
☀	식중독
☀	매우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2:52	07:10
여수	08:31	01:53
	20:18	14:33

◇ 주간 날씨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7/1(월)	2(화)
☁	☁	☁	☁	☁	☁	☁
19/23	21/27	21/28	21/26	21/27	21/28	21/28

완도해경 해수욕장 안전요원 수영평가 20명 선발

완도해경이 명사십리 해수욕장 안전 관리요원 선발을 위한 수영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에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완도해경의 평가 아래 안전관리요원 선발 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완도군이 완도해경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완도해경 소속 3명의 구조대원이 평가자로 나섰다.

평가 종목은 바다수영 왕복 400m, 구조장비를 활용한 의식있는·의식없는 인

명구조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만 18세 이상 수상안전교육 공인기관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총 44명의 지원자 중 평가가 거쳐 남자 15명, 여자 5명 등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안전관리요원들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감시와 순찰, 인명구조 활동과 환자 응급 처치, 각종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고급빌라 건축 반대”

무등산보호단체 성명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무등산 자락의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고급 빌라가 들어서 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고급 빌라 106세대를 재건축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건물 분양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빌라 재건축은 시민이 지켜온 무등산을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재건축 지역은 경관심의·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교통영향심의·자연재해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곳인 만큼 광주시장과 동구청장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6월 모의평가 수학·탐구 작년 수능보다 어렵고 영어는 다소 쉬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4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 144점, 수학 가형 140점, 수학 나형 145점이었다”고 24일 밝혔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보다 6점 낮아졌으나 수학 가형은 7점, 수학 나형은 6점 높아졌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져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다.

이번 모평에서 국어 영역의 난도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낮았으나 객관적인 난도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는 132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같았고, 1등급 비율은 4.16%로 지난해 수능(4.68%)보다

적었다.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 비율 역시 지난해 수능(0.03%)보다 낮은 0.01%에 불과해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학 가형은 1등급 커트라인(130점)이 지난해 수능보다 4점 올랐고, 1등급 비율도 4.24%로 지난해 수능(6.33%)보다 적었다.

수학 나형은 평이한 수준으로 평가됐

나, 1등급 커트라인(136점)이 지난해 수능보다 6점 높게 나타났다. 1등급 비율도 지난해 수능(5.98%)보다 적은 4.22%였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이 7.76%(3만6136명)로 지난해 수능(5.3%)보다 늘어나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여대 ‘빛고을 50+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남구청과 업무협약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2019년 빛고을 50+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 남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남구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장년층 중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취·창업, 사회봉사 등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여대는 이 사업에서 참여자 선발 및 관리, 활동지원 사업 모델·개선사항 발굴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는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평생교육원 박병건 원장은 “퇴직자의 성

공적인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고, 대학·지자체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활동·활성화 모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도 선정되는 등 중장년의 재능 기부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